



發明教室

發明으로 成功한 사람들의 이야기

韓國版 에디슨 元仁浩

외길 27年... 發明品 300여종에 이르러



〈元仁浩 소장〉

27年을 發明이란 외길을 걸은 執念의 發明人 元仁浩씨(52·一元産業技術研究所長). 300여점에 이르는 각종 發明을 하여 「韓國版 에디슨」으로 통하는 元씨는 國內 못지않게 國外에서도 그 명성이 대단하다.

기라성 같은 先進國 發明人들도 元씨의 發明을 향한 執念 앞에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각종 國際展에 한해도 거르지 않고 發明品을 出品하여 계속 受賞해 온 그는 이제 世界的인 發明人이 되었다.

元씨가 發明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4.19가 나던해인 60년으로 그의 나이 27세. 당시 K大 경제학과 2학년이던 재학중이던 그가 머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자 학업을 포기하고 故鄉(충남 천안)으로 내려오면서부터였다.

농사를 짓는 鄉家에 安着한 그는 그때부터 發明人이 될 것을 결심했다.

우선 農村近代化가 機械化를 통한 營農科學化에 있다고 본 그는 호미와 팽이등 각종 농기구 개량연구에 몰두했고, 누룩 및 메주개량을 위해 발효미생물 研究에도 손을 댔다.

農村에 필요한 發明을 위해 全國 農村을 두루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고 많은 농기구 개량을 실현했다.

元씨는 10여년간 故鄉에 살면서 發明한 농기구 관련 發明을 모두 남에게 넘겨주고 지난 73年 上京했다.

살림이 어려워졌지만 더 깊은 研究 生活을 위해 넓은 世界로 나와야 한

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당시 에너지과동에 자극받아 65년부터 생각해 왔던 太陽熱 및 風力을 이용한 건조겸용 發電製置 發明을 본격화, 81년에야 끝을 보았다. 農村의 고추·벼 등의 건조시설이 부족해 안타깝던 일이 동기가 된 이 發明으로 元씨는 81年 제네바 國際發明展에서 金賞의 榮光을 안았다.

이밖에도 늘 發明을 生活化해 온 그가 이제까지 國際發明展에서 받은 賞만도 13個이고, 發明有功者로 政府가 주는 産業褒章도 받았다.

특히 元씨는 75년부터 차려온 一元産業技術研究所라는 個人研究所를 本格的인 産業컨설턴트 기능으로 확대해 특히 中小企業體등에 좋은 아이디어를 提供하겠다는 것.

그러나 요즘은 자신의 發明品인 바이오 팬티를 비롯, 에너지절약형 환풍기 및 통기화분 등이 國內外에서 주문이 밀려들어 發明企業人으로서의 청사진을 設計하기에 여념이 없다. <※>

第27回 發明教室

5月 10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5月 10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27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시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번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盛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는 一元産業技術研究所 元仁浩소장과…○
- …大韓버섯研究所 李殷關소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辨理士의 「工業所有…○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

現代版 상록수 李殷關

代이은 發明人… 버섯과 함께 18年

「아버지의 代를 이어 發明에 몰두, 農村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 發明人 李殷關씨(35·大韓버섯研究所長)는 국내유일의 微生物 分野 發明人.

「아버지 李用夏씨(57·大韓버섯研究所 前 所長·現 大韓버섯研究所 美國農場長)도 發明人이었다.

李씨는 高等학교 때부터 버섯研究을 하는 아버지를 도우며 버섯研究에 빠져들었다. 이 때문에 K大 食品營養學科 졸업 후 국내 굴지의 丁社에 入社했으나 한달이 채 못되어 버섯研究로 돌아와 이젠 중견 發明人의 자리를 굳혔다.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장지 2리 23번지 大韓버섯研究所에는 1年내 내 각종 버섯들이 자라고 있다.

또 2년이 지나야 수확이 가능한 먼 표고버섯이 2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포트·유리병·화분등에서도 버섯이 돌아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

한마디로 「버섯王國」이다.

그러나 이 버섯王國 건설을 위해 李씨는 1억 2천만원에 이르는 研究費와 18年の 세월을 버섯研究에 송두리째 바쳤다.

18年の 세월은 실로 길고 역경과 고난의 나날이었지만 發明人 아버지의 격려 하나로 이겨냈다.

그리고 드디어 結實을 맺어가고 있다.

이미 3件的 特許가 登錄되었고, 15件이 出願중이며, 10여件이 出願을 위해 준비중이다.

그런데 登錄된 特許 第6485號(목이·표고버섯속성재배법)과 第12221號(느타리버섯 포트재배법)은 이미 농가에 널리 보급되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第6064號(황금버섯속성재배법)은 李씨 父子에게 優秀發明者 銅賞의 榮光을 안겨 줬다.

또 大韓버섯研究所 산하에는 國内外 버섯農場도 갖게 되었다. 國內農場은 研究所와 인접해 있으며, 國外農場은 美國 조지아주에 있다.



〈李 殷關 소장〉

지난 2월에 開場한 美國農場은 조지아주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마련해 주었는데 그 규모가 자그마치 1만평이나 된다.

그러나 李씨의 가장 큰 업적은 버섯재배의 주원료를 木材에서 톱밥으로 바꿔놓은데 이어 다시 톱밥에서 벗짚으로 바꿔 놓았다는데 있다. 그런데 요즘 李씨가 하고 있는 研究는 또 다른 버섯의 속성재배법과 양질의 종균배양법.

李씨는 一生을 이 분야에 바칠 計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